

ESG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투자

김성수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이웃 사랑과 경제 활동
- III. 이웃 사랑과 윤리적 투자
- IV. 윤리적 투자와 ESG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1.06>

• ABSTRACT •

The Concept of ESG and the Direction of
Ethical Investment for Christians

Professor by Special Appointment, Kim, Sungsoo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principle of Christian's economic activity and the direction of its investments. The commandment of love of neighbor demands a comprehensive pursuit of self-love and neighbor-love. The neighbor is not only the human being, but also the environment. Neighbor-love must be realized in the Christian's economic activity. Ethical investment, based on John Wesley's theology, promotes the interests of people and the environment.

ESG is a guideline for ethical investment. Christians should therefore avoid investing in companies that do not have an interest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 contributing to society, and implementing democratic structures, and should invest in companies that strive to achieve these goals. Ethical investment by Christians helps to protect people and the environment.

Key words: ESG, Neighbor-love, Ethical Investment, John Wesle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Ethics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충족이 이뤄질 때 행복감을 느낀다. 재물의 소유는 욕구 충족과 심리적 안정을 증진한다.¹⁾ 이에 따라 인간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상태를 희구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를 누린 인물들을 성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근거하여 기독교 전통에서 재물은 단순히 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을 경계해야 하고,²⁾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료 인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범적 인식이 존재하였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눅 16:19-31)는 이 인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³⁾ 이 연장선상에서 장 칼뱅과 그 후예인 청교도에 의해 부의 소유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징표라는 점이 부각됨으로써 재물에 대한 관심은 신학적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하였다.⁴⁾

여기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르틴 루터는 직업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인 책임의 장소로 규정하며, 모든 직업이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⁵⁾ 이로 인해 노동은 책임적 행위로

1) Traugott Jähnichen, “... nicht mit Gold oder Silber. Was gilt: Gott, Geld und deren Geltung,” *ZEE* 44(2000), 124.

2) Martin Luther, “Der große Katechismus,” in *Unser Glaube.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6), 596-597.

3)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Unternehmerisches Handeln in evangelischer Perspektive. Eine Denkschrift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8), 39; 성서의 재물 이해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기독교인과 기업 활동,” 『목회와 신학』 417(2024), 114.

4)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1996), 129-130.

5) Traugott Jähnichen, Wolfgang Maaser, *Die Ethik Martin Luthers* (Bielefeld: Luther Verlag, 2017), 75.

인식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인식에 기초하여 성실히 노동에 임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축적하였다. 그러나 점차 노동 대신 투자가 부의 증식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활동이라는 인식이 발전하였다.

투자는 본래 이자 취득과 결부되어 부정적으로 이해되었다. 성서, 특히 구약성서는 이자를 동료 인간을 채무에 의한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⁶⁾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이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등가물의 교환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⁷⁾ 재물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손을 낳듯이 또 다른 재물을 파생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보았다.⁸⁾ 이러한 흐름 속에서 루터도 빈곤층의 비영리적 이자 취득을 제외하고, 이자를 부과하여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⁹⁾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식이 재정립되었다. 특히 17세기 이후 이자 취득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투자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필수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이해되었다. 이후 투자는 부의 증식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광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투자 사이에 놓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이윤 창출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 고유의 투자 원칙과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투자 목적에 대

6)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Auf dem Weg zu einem nachhaltigen und gerechten Finanzsystem. Eine evangelische Orientierung für Reformschritte zur sozial-ökologischen Transformation der Finanzwirtschaft* (Hannover: EKD, 2021), 48.

7) Aristoteles, *Politika*, 천병희 역, 『정치학』 (경기: 숲, 2012), 46, 49.

8) 이혁배, 『한국 기독교윤리 쟁점』 (서울: 동연, 2010), 250.

9) 위의 책, 250.

한 진지한 윤리적 성찰을 의미한다.¹⁰⁾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그리스도인이 유념해야 할 경제 활동의 원칙과 투자의 방향을 명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웃 사랑과 경제 활동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이웃 사랑을 구현하는 경제 활동인 윤리적 투자의 의미를 밝히려고 한다. 이 토대 위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영 가치인 ESG 개념에 기초한 윤리적 투자의 구체적 노선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이웃 사랑과 경제 활동

사랑은 연민, 애착 등과 혼용되기도 하는 인간의 감정이다.¹¹⁾ 그 핵심은 특정 대상에 대한 호의(Wohltwollen)에 있다.¹²⁾ 사랑의 대상은 인간, 자연, 사물, 가치 등 매우 다채롭다. 그중 인간에 대한 사랑은 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은 스토르게, 상호성에 입각한 친구 사이의 우정은 필리아 개념으로 명료화되었다. 그러나 사랑은 이와 같은 심리적 호의뿐만 아니라 연인 등의 신체에 대한 열망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에로스 개념으로 정식화되었는데, 이 사랑은 호의보다도 그 대상을 향유하고 싶은 욕망이 특화된 사랑의 형태에 해당한다.¹³⁾

사랑의 감정은 타자에 대한 윤리적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윤리적 행위를 증진하는 덕목으로 이해되었다.¹⁴⁾ 그러나 사랑

10) Trutz Rendtorff, *Ethik. Grundelemente, Methodologie und Konkretionen einer ethischen Theologie, Bd.2.* (Stuttgart: Kohlhammer, 1981), 68.

11) Wilfried Härle, *Dogmatik* (Berlin: Walter de Gruyter, 2007), 237.

12) Wolfhart Pannenberg, *Grundlagen der Ethik. Philosophisch-theologische Perspektiv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79.

13) Immanuel Kant,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백종현 역, 『실용적 관점에서
서의 인간학』 (경기: 아카넷, 2015), 133.

을 윤리적 행위의 전제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였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보편적 원칙에 기초한 윤리적 행위만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¹⁴⁾ 사랑은 개별자의 자의적이고, 특수한 감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특히 이것은 충동적이기도 하다.¹⁵⁾ 이에 따라 사랑은 보편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행위의 원칙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사랑을 윤리적 행위의 근본 규범으로 이해한다.¹⁷⁾ 여기서 사랑은 스토르케, 필리아, 에로스와 다르게 타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이타적인 호의에 기초하고 있다.¹⁸⁾ 성서 안에서 이러한 아가페 개념을 포착할 수 있다(롬 5:5). 이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요일 4:8)이다.¹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에서 잘 드러나듯이 행위를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다.²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응답을 요구한다. 이 응답은 인간의 사랑을 통해 구체화된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사랑의 이중계명(막 12:28-31)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사랑의 기본 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그 노선인 하나님 사랑(신 6:5)과 이웃 사랑(레 19:18)은 각기

14) Martin Honecker, *Einführung in die theologische Ethik. Grundlagen und Grundbegriffe* (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152.

15) Immanuel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Frankfurt a. M.: Suhrkamp Verlag, 1982), 140.

16) Immanuel Kant,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312.

17) 이웃 사랑은 성서 속 다양한 윤리적 명령을 상회하는 근본 규범이다. 그런 점에서 이웃 사랑의 계명은 규범들을 위한 규범(Norm für Normen), 곧, 메타규범에 해당한다. Traugott Jähnichen, Wolfgang Maaser, *Die Ethik Martin Luthers*, 53.

18)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251.

19) Wilfried Härle, *Dogmatik*, 236-237.

20) Wolfgang Huber, *Glaubensfragen. Eine evangelische Orientierung* (München: C. H. Beck, 2017), 227.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계명을 연결하여 설명하셨다.²¹⁾ 이 연결은 종말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벽히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삶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변증법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우선성을 가지고, 이웃 사랑의 계명은 이차적 가치를 지닌다.²²⁾

이 순서의 규정 속에 암시되어 있듯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전제이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 루터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결속되어 지배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결부시켰다.²³⁾ 하나님 사랑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이웃 사랑이 이뤄질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웃 사랑이 인간의 의지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 특성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성령의 열매(갈 5:22), 곧, 은혜의 선물이라고 규정한 데서 잘 드러나기도 한다.

인간은 이러한 수동적 차원을 토대로 능동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²⁴⁾ 이웃 사랑의 계명은 윤리적 주체를 “너”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너”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되는 것과 차이를 나타낸다.²⁵⁾ 그리고 레위기 본문에서 윤리적 행위의 대상으로 규정된 “네 이웃”은 이스라

21) Gerd Theißen, “Das Doppelgebot der Liebe. Jüdische Ethik bei Jesus,” in *Jesus als historische Gestalt. Beiträge zur Jesusforschung. Zum 60. Geburtstag von Gerd Theiß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59.

22) Wolfgang Schrage, *Ethik des Neuen Testam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23.

23) Martin Luther, “Der große Katechismus,” 595.

24) Torsten Meireis, “Die Frucht aber des Geistes ist Liebe,” in *Wie kommt die Bibel in die Ethik? Beiträge zu einer Grundfrage theologischer Ethik* (Zürich: TVZ, 2011), 66.

25) Thomas Söding, “Wie weit reicht die Nächstenliebe? Das biblische Konzept in der Diskussion über den Altruismus,” *EvTh* 77/4(2017), 261-262.

엘 민족과 그 땅에 거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데, 이웃 사랑의 계명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²⁶⁾ 원수 사랑의 계명(마 5:44)은 이를 확증한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이웃 사랑의 계명이 행위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⁷⁾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설명은 자기 사랑의 인정을 함의하고 있다. 자기 보존 욕구는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자연적인 것이다.²⁸⁾ 자연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임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관계 규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절대적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것은 분명히 열위하다. 그러나 상대적인 것이 없으면, 절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도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만, 함부로 침해될 수 없다.²⁹⁾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서도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생명 보호와 그 증진을 위한 도덕적, 법적 요구가 정립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십계명의 살인 금지 계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³⁰⁾

이웃 사랑의 계명은 자기 사랑과 균등한 수준으로 이타적 행동을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함의하고 있다.³¹⁾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을 위한 행위 기준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경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26) 위의 책, 262.

27) 위의 책, 263.

28) Dietrich Bonhoeffer, *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2), 169; 자연적인 것의 개념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디트리히 본회퍼의 시민적 용기의 개념과 법윤리적 함의,”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21-22, 27-28.

29)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85), 133.

30) Wolfgang Huber, *Glaubensfragen*, 229.

31) 위의 책, 229-230; Traugott Jähnichen, “Altruismus als intelligente Form des Nutzenkalküls? Zur Diskussion anthropologischer Verhaltensannahmen im Dialog mit den Wirtschaftswissenschaften,” *EvTh* 77/4(2017), 269-270.

런 점에서 자기 이익과 이웃의 이익을 동시에 지향하는 경제 활동은 정당성을 지닌다.³²⁾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과 이웃의 안녕을 위한 노력은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인식은 이기적 태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이타적 태도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이 접촉할 지점을 마련해 준다. 여기서 이웃 사랑의 대상은 인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 역시 이웃 사랑의 대상이다.³³⁾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 인간과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적 과제에 해당한다.

III. 이웃 사랑과 윤리적 투자

투자는 인간과 환경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지닌 경제 활동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에 의해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투자는 사실 이윤 창출을 근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의 증진이 그 핵심 원칙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안정성과 유동성의 고려도 투자의 중요 원칙으로 간주된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윤리성의 원칙을 감안하여 투자에 임해야 한다.³⁴⁾ 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같다. 이웃 사랑을 구현하는 윤리적 투자의 개념은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사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웨슬리는 18세기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부유한 그리스도인

32) 독일개신교협의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이하 독일교회)는 1991년 발표한 경제백서 속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이기적 태도와 이타적 태도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Gemeinwohl und Eigennutz. Wirtschaftliches Handeln in Verantwortung für die Zukunft. Eine Denkschrift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1), 104; 독일교회의 이웃 사랑과 소유의 관계 설정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기독교인의 소유와 공동선,” 『목회와 신학』 416(2024), 118-121.

33)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Gemeinwohl und Eigennutz*, 85-88.

34)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Leitfaden für ethisch-nachhaltige Geldanlage in der evangelischen Kirche* (Hannover: EKD, 2024), 14.

이 증가하자 재물에 대한 이해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1760년 누가복음 16장 9절을 바탕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의미를 밝힌 『돈의 사용』(*The Use of Money*)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고유의 재물관을 제시하였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업무 능력과 태도가 좋지 않다는 평가 속에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자 그는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찾아가 채무액보다 적은 금액을 갚도록 유도하였고, 그 결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채무액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지기는 주인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물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위기 상황에 대처한 청지기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재물을 선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웨슬리는 이 비유를 근거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⁵⁾ 이 생각의 기저에는 재물에 대한 중립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재물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주체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재물은 인간의 태도에 따라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웨슬리는 이처럼 선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규정하였다.

“인류의 현재 상태에서 가장 고귀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돈은 하나님의 훌륭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중에 있는 돈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돈은 여행자들이나 타향인에게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은 과부들에게는 남편과 같은 자리를, 고아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억눌린 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고통

35) John Wesley, “The Use of Money,” 한국웨슬리학회 편, 조종남, 김흥기, 임승안 외 공역, 『웨슬리설교전집 3』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283.

받는 자에게는 안위를 줄 수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눈과 같이 되고, 절름발이에게는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에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³⁶⁾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웨슬리는 재물의 선용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부의 축적에 힘쓰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직업이 하나님과 관계된 책임의 장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며, 재물을 모아야 한다.³⁷⁾ 이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근면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재물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가령 유해 물질에 노출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노동에 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³⁸⁾ 그리고 부의 축적 과정에서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통해 자기 영혼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재물을 모으는 행위, 특히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³⁹⁾ 또한 동료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부를 증식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여 동료 인간의 삶을 위협하거나 주류 생산과 오락 사업을 통해 그 영혼과 육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이윤을 얻는 것은 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⁴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며, 성실하고, 근면하게 부를 축적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저축에 힘쓰는 것이다. 이 원칙은 낭비를 줄이라는 요구와 결합되어 있다. 웨슬리는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한 소비를 비판적으

36) 위의 책, 284-285.

37) 위의 책, 290.

38) 위의 책, 285.

39) 위의 책, 286.

40) 위의 책, 287-288.

로 보았다. 고가의 식사, 의복, 가구, 미술 작품, 장서 등 사치품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재물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⁴¹⁾ 이러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를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과제에 해당한다.⁴²⁾

세 번째 원칙은 재물 나눔에 힘쓰는 것이다. 이는 재물을 모으고, 저축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동료 인간을 위해 선용하는 것을 뜻한다.⁴³⁾ 재물 나눔은 인간이 청지기라는 인식의 확립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인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다.⁴⁴⁾ 재물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은 영혼, 육체, 재물을 잠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⁴⁵⁾ 그런 점에서 재물은 동료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주변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선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단한 근면과 모든 지혜를 적용하여, 영혼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분이나 이웃을 해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버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욕망에 빠뜨리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중단함으로써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저축하십시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활의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데 소비되는 모든 경비를 중단함으로써 말입니다. (...)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십시오. (...) 여러분이 가

41) 위의 책, 292.

42) 위의 책, 294.

43) 위의 책, 295.

44) 위의 책, 296.

45) 위의 책, 298.

진 모든 것을 더도 덜도 말고 가족, 믿음의 식구, 그리고 인류를 위해, 여러분이 청지기직을 마치게 될 때 청지기로서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십시오.”⁴⁶⁾

웨슬리의 재물관은 자기 이익과 동료 인간의 이익을 함께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이웃 사랑의 계명에 토대를 둔 경제 활동의 원리에 상응한다. 웨슬리의 생각은 19세기 말 감리교회에 의해 주식 투자의 원칙으로 활용되었다.⁴⁷⁾ 특히 그가 언급한 생명과 건강의 보전, 법률의 준수, 동료 인간에 대한 해악 금지 등의 요청은 투자 가능 기업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으로 기능하였다. 20세기 중반 영국국교회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윤리적 투자에 관심을 기울였다. 20세기 후반 시민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의 사회적 역할이 부각되면서 윤리적 투자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적 경제 활동으로 이해되었다.⁴⁸⁾ 이후 환경 파괴로 인해 그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자 윤리적 투자는 지속가능성 개념과 결합되기도 하였다.⁴⁹⁾ 이를 통해 윤리적 투자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는 경제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ESG 개념은 윤리적 투자의 방향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IV. 윤리적 투자와 ESG

ESG는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경영 가치이다.⁵⁰⁾ 상업자본주의를

46) 위의 책, 298.

47)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Auf dem Weg zu einem nachhaltigen und gerechten Finanzsystem*, 177.

48) 강원돈,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파주: 한울, 2005), 297.

49)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Leitfaden für ethisch-nachhaltige Geldanlage in der evangelischen Kirche*, 13-14.

거쳐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이 증진되었는데, 그 요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윤은 기업가와 주주의 이익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주주 중심 경영이 기업 경영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인식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겪었다. 1920년대 말 경제 대공황을 겪은 미국 내부에서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성장하였다. 이 인식은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강력한 사회적 요구로 발전하였다.⁵¹⁾ 이에 따라 1970년대부터 기업가와 주주 외에도 노동자, 공급자, 판매자, 소비자, 지역 사회, 국가, 환경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지향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주주(stockholder) 중심 경영에서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⁵²⁾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공헌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그 결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개념이 체계화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 공헌에 힘써야 한다는 규범적 인식이 정립되었다.

CSR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중요한 경영 원리로 자리 잡았다.⁵³⁾

50) ESG는 목회 가치로도 이해되고 있다. ESG의 개념과 목회적 적용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ESG 목회와 교회의 사회적 공헌,” 『활천』 844(2024), 26-29.

51) 주성수, 『나눔문화: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시민참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448.

52) 김종대, 한상만,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한국경영학회,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의 ESG 경영』 (서울: 박영사, 2023), 6-7.

53) 독일교회도 2008년 발간한 기업백서를 통해 노동자, 소비자, 환경을 이웃 사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보호를 구체화하는 개념으로 CSR을 소개한 바 있다.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Unternehmerisches Handeln in evangelischer Perspektive*, 25, 36-38, 63-66, 105; 독일교회의 CSR 이해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기독교인과 기업 활동,” 114-115.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이윤 창출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가 CSR 추진 기업의 명단을 보고,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함께 증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개념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기본 방향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증화되었다. 이를 통해 CSR은 이윤 창출과 사회적 공헌을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유의미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CSR은 국내에서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경영 가치로 인식되며, 기업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과정에서 특히 기업의 사회 봉사가 활성화되었다.⁵⁴⁾ 많은 기업에서 봉사단이 조직되어 지역 사회 봉사가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지속성을 갖지 못하였고, 그마저도 전문가와의 협업이 이뤄지지 않은 단순 봉사에 머물렀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 봉사에 국한시키는 기업의 인식이 확산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CSR을 순수하게 사회적 공헌을 위한 활동으로 여기지 않고,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간주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이 개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증가하였다.⁵⁵⁾ 국외에서도 CSR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면서 그 대안으로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기업의 사회적 영향(Corporate Social Impact, CSI) 등 개념들이 주목받기도 하였다.⁵⁶⁾

ESG도 CSR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⁵⁷⁾ 이 개념은 2003년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후 2005년 유엔 글로벌콤팩트(UN

54) 주성수, 『나눔문화: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시민참여』, 479-481.

55) 위의 책, 482; 윤리적 경영의 한계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문시영, “윤리경영, 그 기독교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7(2007), 63-64.

56) 주성수, 『ESG시대의 CSR, CSV, CSI』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2), 35-39.

57) 김재필, 『ESG 혁명이 온다 2: 미래 전략과 7가지 트렌드 편』 (서울: 한스미디어, 2022), 26-30.

Global Compact)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ESG는 2015년 발표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적 가치로 이해되었고, 2020년 유명 투자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에 의해 강조되면서 경제 영역을 선도하는 개념으로 부상하였다. 이후 ESG는 기업 경영에서 추구되어야 할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

ESG는 CSR보다 정교하게 윤리적 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SG에서 E는 환경(Environment)을 뜻하는데, 기후 변화를 비롯한 자원 고갈, 폐기물 배출, 환경 오염, 삼림 파괴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환경 보호에 관한 요구를 함의하고 있다.⁵⁸⁾ 이처럼 ESG는 환경 보호를 사회적 공헌과 분리하여 주제화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 문제의 극복이 독립적으로 주제화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 그 실현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저에 두고 있다. 또한 S는 사회적 공헌(Social)을 의미하는데, 이는 CSR과 마찬가지로 사회 봉사를 비롯하여 인권 보장, 일자리 창출, 노동 조건 개선 등 다채로운 사회적 기여에의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⁵⁹⁾

ESG는 사회적 공헌의 구현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기업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하다. ESG의 G는 민주적 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이것은 뇌물과 부패 방지, 경영진 급여의 적정성, 이사회원의 다양성, 납세의 투명성 등에 대한 노력을 함의하고 있다.⁶⁰⁾ 이것은 민주적 기업 경영에 대한 요청을 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SG는 기업 내외부에 대한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58) 박태영, 윤건용, 『ESG의 구조 착한 ESG 그리고 위험한 ES+G』(경기: 문우사, 2021), 11.

59) 위의 책, 11.

60) 위의 책, 11.

특징을 가지고 있다.

ESG는 CSR보다 더 높은 실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CSR은 자발성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이윤 창출과 사회적 기여, 그리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 기업 스스로 CSR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ESG는 이와 달리 투자자의 압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⁶¹⁾ 투자자가 ESG 추진 기업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인식 때문에 기업은 윤리적 경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재원을 마련해야 생존할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환경 보호, 사회적 공헌, 민주적 구조의 실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ESG는 이와 같은 비자발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⁶²⁾

ESG 추진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증진한다.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에 동참해야 한다. 그 실천을 위해 ESG에 토대를 둔 윤리적 투자의 노선이 안내될 필요가 있다. 이는 ESG를 중시하지 않는 기업과 중시하는 기업의 구분을 통해 선명해진다.⁶³⁾ 그리스도인은 전자에 대한 투자를 지양함으로써 기업의 각성과 경영 방향의 개선을 촉구하고, 후자에 대한 투자를 권장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기여해야 한다.

ESG를 중시하지 않는 기업의 특징, 그중에서도 환경에 부담을 주는 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⁶⁴⁾

61) 주성수, 『ESG시대의 CSR, CSV, CSI』, 39.

62) CSR과 마찬가지로 ESG도 일부 기업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ESG를 추구하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얻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않으면서, 이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노력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시장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ESG는 인간과 환경을 위한 윤리적 투자의 노선으로 유의미한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구가 필요하다. 김태영, “ESG 경영전략과 기업시민,” 송호근 외, 『ESG 시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시민』 (경기: 플랜비, 2023), 21.

63) ESG의 부상 이전에 논의된 윤리적 기업의 기준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강원돈,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298.

64)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Leitfaden für ethisch-nachhaltige Geldanlage*

- 원자력 생산 기업
-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 기업
- 유전자 조작 종자 생산 기업

그리스도인은 원자력과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생산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 에너지원들은 효율, 비용 등과 관련하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에 큰 해악을 끼친다. 또한 유전자 조작 종자를 생산하는 것도 종 다양성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⁶⁵⁾

- 무기 제조 기업
- 주류(알코올 함량 20% 이상) 생산 기업
- 담배, 비의료용 대마 생산 기업
- 도박 산업 관련 기업
- 노동자 인권 침해 기업

그리스도인은 무기 제조를 통해 인명을 살상하는 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주류, 담배 등 건강에 유해한 제품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심각한 중독을 가져오는 비의료용 대마와 도박 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회피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 조건을 보호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적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은 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⁶⁶⁾

in der evangelischen Kirche, 37.

65) 위의 책, 37.

66) 위의 책, 42.

- 부패 기업
- 세금 회피 기업

그리스도인은 부패한 기업과 세금 회피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성실한 납세는 우선적인 경영 원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금은 근대 국가의 기능 수행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제도도 간주되어왔다.⁶⁷⁾ 이는 평화와 질서의 보호를 위해 다채로운 방식으로 사용된다. 세금은 인간⁶⁸⁾뿐만 아니라 환경⁶⁹⁾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탈세 등의 세금 회피 행위는 인간과 환경 보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ESG를 중시하지 않는 기업 대신 그 가치에 부합하는 경영에 힘쓰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⁷⁰⁾ 특히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공정여행 등의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노동권의 보장과 노동 조건의 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사회적 공헌을 현실화하는 기업과 투명한 납세 태도를 통해 민주적 경영을 활성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67)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Transparenz und Gerechtigkeit. Aufgaben und Grenzen des Staates bei der Besteuerung* (Hannover: EKD, 2009), 15; 독일교회의 세금 이해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기독교인과 세금,” 『목회와 신학』 418(2024), 108-111.

68) 최경석,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판단 기준의 설정 - 연대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0(2014), 121.

69)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Transparenz und Gerechtigkeit*, 35.

70)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Leitfaden für ethisch-nachhaltige Geldanlage in der evangelischen Kirche*, 43-45.

V. 나가는 말

이웃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윤리적 과제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규범은 자기 이익과 이웃의 이익을 함께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이웃은 인간과 환경을 포괄한다. 이 요구는 경제 활동을 통해 구현된다. 윤리적 투자는 인간과 환경의 이익을 지향하는 경제 활동이다. 그리스도인은 부의 축적과 저축에서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한 재물의 선용을 강조한 웨슬리의 생각을 확장하여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힘써야 한다. 특히 환경 보호, 사회적 공헌, 민주적 구조를 증진하는 개념인 ESG는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ESG를 중시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에 주목하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결과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SG를 토대로 한 윤리적 투자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인간과 환경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돈.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파주: 한울, 2005.
- 김성수. “디트리히 본회퍼의 시민적 용기의 개념과 법윤리적 함의.”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9-35.
- _____. “ESG 목회와 교회의 사회적 공헌.” 『활천』 844(2024), 26-29.
- _____. “기독교인의 소유와 공동선.” 『목회와 신학』 416(2024), 118-121.
- _____. “기독교인과 기업 활동.” 『목회와 신학』 417(2024), 112-115.
- _____. “기독교인과 세금.” 『목회와 신학』 418(2024), 108-111.
- 김재필. 『ESG 혁명이 온다 2: 미래 전략과 7가지 트렌드 편』. 서울: 한스미디어, 2022.
- 김종대, 한상만.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한국 경영학회,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의 ESG 경영』. 서울: 박영사, 2023, 1-31.
- 김태영. “ESG경영전략과 기업시민.” 송호근 외. 『ESG 시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시민』. 경기: 플랜비, 2023, 20-50.
- 문시영. “‘윤리경영’, 그 기독교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7(2007), 61-70.
- 박태영, 윤건용. 『ESG의 구조: 착한 ESG 그리고 위험한 ES+G』. 경기: 문우사, 2021.
- 이혁배. 『한국 기독교윤리 쟁점』. 서울: 동연, 2010.
- 주성수. 『나눔문화: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시민참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 _____. 『ESG시대의 CSR, CSV, CSI』.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2.
- 최경석.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판단 기준의 설정 - 연대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0(2014), 99-126.
- Aristoteles. *Politika*. 천병희 역. 『정치학』. 경기: 숲, 2012.
- Bonhoeffer, Dietrich. *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2.
-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Gemeinwohl und Eigennutz. Wirtschaftliches Handeln in Verantwortung für die Zukunft. Eine Denkschrift*

-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1.
- _____. *Unternehmerisches Handeln in evangelischer Perspektive. Eine Denkschrift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8.
- _____. *Transparenz und Gerechtigkeit. Aufgaben und Grenzen des Staates bei der Besteuerung*. Hannover: EKD, 2009.
- _____. *Auf dem Weg zu einem nachhaltigen und gerechten Finanzsystem. Eine evangelische Orientierung für Reformschritte zur sozial-ökologischen Transformation der Finanzwirtschaft*. Hannover: EKD, 2021.
- _____. *Leitfaden für ethisch-nachhaltige Geldanlage in der evangelischen Kirche*. Hannover: EKD, 2024.
- Härle, Wilfried, *Dogmatik*. Berlin: Walter de Gruyter, 2007.
- Honecker, Martin, *Einführung in die theologische Ethik. Grundlagen und Grundbegriffe*. 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 Huber, Wolfgang,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 _____. *Glaubensfragen. Eine evangelische Orientierung*. München: C. H. Beck, 2017.
- Jähnichen, Traugott, “... nicht mit Gold oder Silber. Was gilt: Gott, Geld und deren Geltung.”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 44(2000), 123-132.
- _____. “Altruismus als intelligente Form des Nutzenkalküls? Zur Diskussion anthropologischer Verhaltensannahmen im Dialog mit den Wirtschaftswissenschaften.” *Evangelische Theologie* 77/4(2017), 268-282.
- _____. Maaser, Wolfgang, *Die Ethik Martin Luthers*. Bielefeld: Luther Verlag, 2017.
- Kant, Immanuel,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Frankfurt a. M.: Suhrkamp Verlag, 1982.
- _____.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백종현 역. 『실용적 관점에서 의 인간학』. 경기: 아카넷, 2015.
- Luther, Martin, “Der große Katechismus.” In *Unser Glaube.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Gütersloh:

- Gütersloher Verlagshaus, 1986, 583-770.
- Meireis, Torsten. "Die Frucht aber des Geistes ist Liebe." In *Wie kommt die Bibel in die Ethik? Beiträge zu einer Grundfrage theologischer Ethik*. Zürich: TVZ, 2011, 59-75.
- Pannenberg, Wolfhart. *Grundlagen der Ethik. Philosophisch-theologische Perspektiv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 Rendtorff, Trutz. *Ethik. Grundelemente, Methodologie und Konkretionen einer ethischen Theologie*. Bd.2. Stuttgart: Kohlhammer, 1981.
- Rich, Arthur. *Wirtschaftsethik.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85.
- Schrage, Wolfgang. *Ethik des Neuen Testam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 Söding, Thomas. "Wie weit reicht die Nächstenliebe? Das biblische Konzept in der Diskussion über den Altruismus." *Evangelische Theologie* 77/4(2017), 258-267.
- Theißen, Gerd. "Das Doppelgebot der Liebe. Jüdische Ethik bei Jesus." In *Jesus als historische Gestalt. Beiträge zur Jesusforschung. Zum 60. Geburtstag von Gerd Theiß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57-72.
-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1996.
- Wesley, John. "The Use of Money." 한국웨슬리학회 편. 조종남 · 김흥기 · 임승안 외 공역. 『웨슬리설교전집 3』.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281-299.

논문투고일: 2025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2025년 03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04월 05일

• 국 문 소 록 •

본 논문은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할 경제 활동의 원칙과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은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종합적 추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이웃은 인간과 환경을 포함한다.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웨슬리의 신학에 토대를 두고 있는 윤리적 투자는 인간과 환경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제 활동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영 가치인 ESG는 윤리적 투자의 노선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환경 보호, 사회적 공헌, 민주적 구조의 실현을 중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그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투자는 인간과 환경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ESG, 이웃 사랑, 윤리적 투자, 존 웨슬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 윤리
